

[ 종합 ]

농촌공사, 영산강 Ⅲ단계 간척지사업 설계 잘못

영암·금호·영산호 수질 악화 시켰다

퇴적물 급격히 쌓여 악취... 서남해안 레저도시 개발 차질

해남과 영암, 강진군 등 3개 지역에 시흥되고 있는 영산강 Ⅲ단계 간척지 사업으로 영암호와 금호호, 영산호 수질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사업주체인 농촌공사의 잘못된 설계변경으로 유기퇴적물이 급격히 쌓이면서 서남해안관광레저지개발 도시 건설도 성공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남군은 최근 영암호·금호호 수질 개선 및 영산강 Ⅲ단계 간척지 활용전략 연구자료를 통해 "지난 88년부터 시작된 영산강 Ⅲ단계 간척지 사업이 수질정화 기능을 저하시킨 설계 때문

에 영암호와 영암호, 금호호의 수질이 농업용수로도 사용하기 어려운 4등급 이하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자료는 "당시 농촌공사가 개담 공사 설계를 하면서 수질개선 효과가 큰 갯고랑을 살리겠다던 계획을 취소하고 갯고랑을 배워 수질정화 기능을 오히려 악화시켰다"면서 "여기에 영암호와 금호호로 이어지는 대형수로 2개를 만든다는 계획도 변경해 1개만을 설계하면서 호수의 물 순환이 막혀 수질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척지내 쌀 농사로 과도한 비료와 농약이 호수로 흘러들어오고 있

으며, 오염도가 심한 6등급의 영산호 물이 영암호 등으로 유입되는 것도 수질오염의 한 요인으로 조사됐다.

이로인해 영암 방조제와 금호 방조제에는 일반 방조제의 연간 퇴적물인 1~2cm의 15~20배에 이르는 20~30cm의 유기 퇴적물이 쌓이면서 심각한 악취 등이 발생, 주민들도 접근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는 "이같은 수질오염이 유지될 경우 2등급 이상의 수질이 요구되는 서남해안관광레저지개발도시의 조성에도 큰 차질이 예상되는 한편 대규모 간척지에서 경작중인 각종 농산물이 친환경농업 인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통일쌀’ 모내기

5일 광주시 남구 양과동에서 열린 ‘통일쌀 경작 모내기 행사’ 중 한 농민이 이랑기로 모를 심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시농민회는 이곳에서 통일쌀 150가마를 수확한 뒤 오는 10월말 북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인명주기자 mjna@kwangju.co.kr

“U대회 재도전 신속히 결정해야”

유재신 시의원 주장

광주시의 201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유치가 실패로 돌아간 가운데 5일 열린 광주시의회에서 U대회 유치에 재도전하자는 의견이 나와 광주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광주시의회 유재신(민주·광산2) 의원은 5일 열린 제169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하계 U대회 유치에 대한 재도전 여부를 신중히, 그러나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2002년 한일 월드컵과 여수엑스포도 험난한 과정을 거쳐 얻어낸 것이며 평창의 동계올림픽은 두 번의 아픔을 겪고 있다”며 “광주가 다시는 올해와 같은 고배를 마시지 않도록 반성의 기초 위에서 보다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번 U대회 유치전에 서 기반시설 부족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적극 해법을 제시하고 자원의사를 밝혔다면 유치위원들은 광주를 조금 더 눈여겨 봤을 것”이라며 “유치전 초기 차관급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이어 “이번 U대회 유치전에 서 기반시설 부족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적극 해법을 제시하고 자원의사를 밝혔다면 유치위원들은 광주를 조금 더 눈여겨 봤을 것”이라며 “유치전 초기 차관급으로 대표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정부의 소극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발전연구원장

채일병 前의원 선임

광주발전연구원장에 채일병(61·사진) 전 국회의원이 선임됐다.

광주발전연구원장은 5일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 전원 일치로 채씨를 제2대 원장에 선임했다. 채씨는 다음 주 중 임명장 수여와 취임식 등 절차를 밟아 앞으로 3년 동안 광주발전연구원을 이끌게 된다. 채 선임자는 “광주발전연구원을 21세기 ‘1등 광주’ 건설의 선도적 기능을 수행하는 종합정책 연구기관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채 선임자는 해남 출신으로 광주이고 와 단국대를 졸업하고 국민대 행정대학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행정자치부 자치지원국장,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을 거쳐 제17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정후식기자 who@



요문화전당 완공까지 ‘함바집’ 설치 않는다

동구·대림산업 합의 ... 구도심 활성화 협력

오는 10일로 예정된 광주 아시안문화전당 기공식을 앞두고 광주 구도심 요식업계의 숙의(?) 중 하나가 풀렸다. 문화전당 시공사인 대림산업이 공사장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공사 현장 식당(속칭 ‘함바집’)을 설치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10일 기공식이 끝나면 문화전당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광주시 동구청과 문화중심추진단은 5일 오전 긴급 회동을 갖고 광주 구도심 활성화화를 위해 2012년으로 예정된 문화전당 완공 때까지 공사현장에 함바집을 설치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당초 대림산업측은 공사현장에 자체적으로 함바집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날 회동에는 동구 요식업협회와 총장도 변영희 대표 등도 참여했다.

이날 회동에서 동구청은 “심각한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옛 전남도청 주변 활성화를 위해 공사기간 중 공사 관계자와 근로자들이 공사현장 일대 식당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문화중심도시추진단과 시공사인 대림산업 측은 2012년 완공까지 함바집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로써 아시안문화중심도시 추진의 장기화에 따라 침체국면에 빠져든 옛 전남도청 일대 식당이 차츰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문화전당 공사가 본격화되면 약 600~1천여명이 4년여동안 공사 현장에 상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인현주기자 ahj@

광양제철 ‘상생경영’

고유가 시대 화물업체 운송료 지원

오는 10일 화물연대 파업을 앞두고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화물운송료를 지원해주고 다른 전남 동부권 제조업체(화주)들도 운송료 인상을 검토하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5일 순천테크노파크 회의실에서 박준영 전남도지사 주관으로 열린 ‘고유가 화물운송 간담회’에서 “유류 인상분을 보완해 주는 방안을 화물운송업체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제철소 공윤찬 부소장은 “이달 중순까지 임차료 인상 협상을 마무리해 타 업체에 협상 모델을 제시,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제철소는 이달 중순 화물운송업체들에 대해 유류가 인상분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해주고 내년 7월 제계약시에 유류비 인상분을 반영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금호타이어, 여천NCC, 호남석유화학 등 화물물류량이 많은 전남 동부권 지역 제조업체 9곳도 광양제철소의 방침에 공감해 운송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운송업체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기로 했다.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고유가로 인한 엄청난 부담을 운송업체에 지울 수만은 없는 상태여서 운송업체와 제조업체가 상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기대한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 추경 4조 5,823억 편성

8.2% 증액...의회 심의 요청

전남도가 2008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초 예산 4조 2천331억원 보다 3천492억원(8.2%) 증가한 4조5천823억원 규모로 편성, 5일 도의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했다.

이중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 3조4천651억원 보다 3천707억원(8.9%) 증가한 3조7천217억원,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 7천680억원보다 422억원(5.5%) 증가한 8천10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이번 추경안 편성은 예산 10% 절감시책 추진에 따라 121억원을 절감, 이를 지역경제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사업에 재투자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또 도민 소득증대사업과 2008 광주·전남 방문의 해 및 전국체육대회 준비, F1 경기장 기반시설 등 도정 역점사업에도 우선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추경에 증가된 세입은 일반회계의 경우 총 3천707억원으로 세외수입 514억원, 지방교부세 1천432억원, 보조금 1천69억원 등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빛의만평' (Light's Review) by Kim Jung-do. It features a cartoon illustration of a person sitting at a desk with a computer, surrounded by various items like a clock, a lamp, and a book. The text discusses the importance of light in daily life and the environment.

Advertisement for '광주일보' (Gwangju Ilbo) featuring a '광고접수안내' (Advertisement Reception Guide). It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advertising, including phone numbers and an email address (design@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HOMECON' real estate services. It features a list of agent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long with a section titled '받은 것보다 큰 이익을 줍니다.' (We give more than what you receive). The agents listed include 김윤삼, 박길수, 김경호, 김기영, and 김기영.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for the '산행안내' (Hiking Safety) group. It lists various hiking routes and their details, including dates, 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oup.

Advertisement for '산행안내' (Hiking Guide) for the '산행안내' (Hiking Safety) group. It lists various hiking routes and their details, including dates, times,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group.

Advertisement for 'SONY의 모든 것' (Everything SONY). It features the Sony logo and the text 'www.119accessories.co.kr' and '소니광주전시판매장 (062)522-2000'.